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 ‘내실화’ 시급

내년부터 전 학년 의무화 앞두고 제도 허점
수영시설 ‘전무’ ...교육내용 차별화 목소리도

수상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존수영 수업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되지만 전남도내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교육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상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초등학교에 생존수영 수업이 도입됐으며, 지역교육청별로 2학년과 5~6학년까지 교육하는 곳도 있다.

생존수영 교육은 1년에 배정된 수영교육 10시간 가운데 학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시간 중 4시간 이상을 생존수영에 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생존수영은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가진 자체 부력으로 1~2시간 물에 떠서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는 영법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예산도 2015년 6억8,000만원에서 2017년 7억4,000만원 늘렸으며, 올해는 무려 38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의무화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자체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

면 대부분 외부 수영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군단위에 수영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허다하다.

실제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전남도내 전체 428개 초등학교 중 자체 수영시설을 갖춘 학교는 8곳에 불과하다.



사회적경제 협업 네트워크 토크쇼

나머지 학교는 수영장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교 내에 간이수영장을 설치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기에 수영장 입수 횟수와 교육시간(생존교육 4시간 포함 10시간)으로 생존수영 교육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등 보여주기식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교육청 한 관계자는 “시설여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우선 주어진 교육시간을 내

실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년에 따라 교육내용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대상 학년이 확대되면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데도 매년 똑같은 교육이 이뤄져 학생들이 흥미를 잃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적인 교육보다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인프라 등을 제도화시키는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대학교 손석준 교수는 지난 18일 먼저 간 아내의 이름을 붙인 장학금 2,000만원을 대학에 기부했다. /전남대 제공

‘먼저 간 아내’ 기리며 장학금 쾌척

손석준 전남대 교수, 대학에 2천만원 기부

먼저 간 아내의 이름을 붙인 장학금을 기부한 대학교수가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남대학교 손석준 교수(의대)는 지난 18일 오전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예방해 장학금 2,000만원을 기부하며, 이 기금을 지난해 작고한 아내와 자신의 이름을 딴 ‘정혜경·손석준 장학금’으로 명명해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손 교수는 “생전에 전남대 수의과대학

으로부터 실험이 끝난 강아지를 분양받은 아내가 그 강아지를 무척 아꼈다”며 “이 강아지가 두 차례나 전남대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데다, 제 아들까지 수의과대학에 들어가는 등 수의과대학과 깊은 인연이 이어져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병석 총장은 “고인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장학금인 만큼 수의대 학생들을 훌륭하게 양성하는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공론화’ 상무중·치평중 통합추진위 구성

광주지역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무중·치평중 통폐합 여부가 학부모 전수 조사로 결정된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서구청은 사회적 논의기구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상무중·치평중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두 학교 통폐합 논의를 주도할 기구로 상무중 4명, 치평중 4명, 시의회 의원 1명, 서구의회 의원 4명, 주민대표 1명 등 모두 14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다음달 중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청회도 연다. 이후 두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찬성률이 50% 이상이면 통합을 전제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미만이면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두섭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은 “시교육청과 서구는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진로 체험·생활편의 시설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다만, 두 학교 통합여부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추진위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9월 4일 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평가

내달 4일까지 접수...출제 방향·난이도 가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오는 9월 4일 모의평가가 시행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실제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실제 수능과 같다. EBS 수능 교재·강의 연계도도 문항 수 기준 70%로 실제 수능과 동일하다.

수능 필수영역인 한국사영역 역시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모의평가는 2020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치를 수 있다. 8월 7일 실시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전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은 희망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받을 수 있다. 수학영역 시간에는 점자정 보단말기를 쓸 수 있다.

실제 수능처럼 통신·결제 등 블루투스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이어폰은 반입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반입금지 품목이다.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기철 기자

시교육청 대가성 해외연수 논란

광주시교육청의 진로진학 유공 교원 국외연수가 실적 위주의 대가성 연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참가자 대다수(16명)가 일반계고 진학·진로업무 교사”라며 “교원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적분야 활동과 기여도 등 오로지 실적만으로 연수참가자를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교사들은 학교당 1명씩 별도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가고, 이번 연수에는 진학뿐 아니라 진로 상담교사도 8명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조기철 기자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8억 8천만원